

[2013년6월17일 오늘의 아침편지]

친구의 슬픔
友人の悲しみ

친구가 슬퍼하고 있다면
友人が悲しんでいたら

그 친구가 슬픔을 이겨내도록 돕는 것이
その友人の悲しみを乗り越えるように助けてあげることが

목표가 되어야 한다. 혹은 목표를 적절하게
目標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あるいは目標を適切に

내면화해서 슬픔에 빠진 친구가 스스로 그 슬픔을
内面化して、悲しみに陥った友人がみずから悲しみを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克服できるように助けることが最善の方法です

친구의 슬픔에 함께 사로잡히는 것은
友人の悲しみとともに駆られることは

친구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으며,
友達に助けになることはなく

자신에게도 상처로
自分にも傷として

돌아올 뿐이다.
戻ってくるだけだ

- 윌리엄 B. 어빈의《직언》중에서 -
- ウィリアム・B・アーヴァインの〈直言〉より -

* 많은 경우에
* 多くの場合

친구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友人の悲しみが私の悲しみとして近づきます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슬픔에서 벗어나
しかし、誰か一人はその悲しみから抜け出し

새로운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슬픔을 당한 당사자가
新しい世界に出なければなりません。悲しみを受けた当事者

스스로 벗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みずから離れるのを期待するのは難しいです

그것은 전적으로 친구의 몫입니다.
それは、すべて友人の取り分です

그래서 친구가 필요합니다.
だから友人が必要です

적절히

[부사]適切に; いみじくも.

사로잡히다

[자동사]

[‘사로잡다’의受け身]

(생포되다) 生け捕られる; 生け捕りにされる.

(얼매이다) (心·欲望などに)捕られる; とりこになる; 駆られる; 襲われる.

돌아오다

[자동사]

(다시) 帰[返](かえ)る; 帰って来る; 戻る.

(차례·차지) (順が)回って来る; 巡(って来)る.

[타동사]曲がって来る.

직언 (直言)

[명사]直言.

전적 (全的)

[관형사][명사]全的.

[2013년6월18일 오늘의 아침편지]

6세에서 9세, 66세에서 99세까지
6~9歳、66歳~99歳まで

' ' <작은따옴표>는
' ' <싱글·쿼터레이션·마크>は、

6과 9란 숫자가 원을 그리고 있다.
6と9という数字が円を描いている

” ” <큰따옴표>는 66과 99란 숫자가 강강술래를
” ” <ダブル·싱글·쿼터레이션·마크>は66と99という数字が歌踊って

하는 것 같다. 6세에서 9세까지의 동그란 언어로
いるようだ。6から9までの丸い言語で

66세에서 99세까지의 우주의 말씀을
66から99までの宇宙の言葉を

따오고 싶었다.
引用したかった

- 이정록의 시집《어머니 학교》중에서 -
- イ・ジョンロクの詩集<ママの学校>より -

* 작은따옴표, 큰따옴표까지도
* 싱글、ダブル·쿼터레이션·마크までも

시인의 시선에 들면 한순간에 시가 됩니다.
詩人の視線にとまれば、一瞬で詩になります

순진무구한 어린 아이의 동그란 언어에서
純粹無垢な赤ちゃんが、丸い言語で

천리를 보고 우주의 언어를 읽는 노인의
千里を見て、宇宙の言語を読む高齢者の

지혜까지, 따옴표 하나에 모든 것이
知恵まで、引用符一つにすべてのことが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흥망성쇠,
詰まっています。愛の興亡盛衰

희로애락이 다 들어 있습니다.
喜怒哀樂のすべてが入っています

싱글·쿼터레이션·마크(single quotation marks)

작은따옴표

강강술래

[명사][민속] 婦女子らが手に手を取って踊る民俗(...

따오다

[자동사][타동사](人の文や話などを)引用する.

흥망성쇠

[명사]興亡盛衰; 盈虚.

2013년 6월 19일 보낸 편지입니다.(400조회)

모퉁이
角

살다보면 여러 모퉁이에서
生きてみれば、色んな角で

운명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것은
運命にあって、また分かります。それは

사람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人であることもあって、場所であることでもあります

돌이켜보면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조차 반드시
振り返ってみれば、会って分かれた人は、必ず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이었고, 여행으로
会わなければならない人だったと、旅行で

어떤 장소에 머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色んな場所にとどまるときも同じでした

그냥, 어쩌다가, 일없이 만나고
ただ、偶然に、ふとあって

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分かれることもありません

- 양희의《아이가 말했다 잘 왔다 아프리카》중에서 -
- ヤンヒの<子供が言った、ようこそアフリカ>より -

* 인생길을 걷노라면
* 人生の道を渡れば

굽이굽이 여러 모퉁이를 돌게 됩니다.
あちこち色んな角が詰まっています

그곳에서 운명과도 같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そこで運命のような出会いに至ります

우연처럼 선물처럼...참으로 신비롭습니다.
偶然のように、贈り物のように、とても神秘的です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꿈을 찾고
その出会いを通じ新しい挑戦と夢をもって

방향을 통째로 바꾸기도 합니다.
方向を全て変えたりします

인생의 수많은 모퉁이가
人生のあまたの角が

모두 선물입니다.
全て贈り物です

모퉁이

[명사]

(道や建物などの)曲がり角; 角.

(室内などの)片隅; 隅.

어찌다가

[부사]

(우연히) 意外に; 偶然に; 思いがけなく; ひょっと(し...

(가끔) ときおり; たまに; 時に.

[준말] ‘어찌하다가(=どうかして)’의略語.[준말]어찌다.

2013년 6월 20일 보낸 편지입니다.(648조회)

'너도 많이 힘들구나'
'お前も辛かったな'

"너도 많이 힘들구나.
"お前も辛かったな"

너도 나처럼 아프구나.
お前も、私みたいにつらかったな

그래도 힘내서 살아가자."
それでも、力を出して生きよう"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この言葉はこの時代を生きていく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全ての人に聞かせたい言葉だ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역시 들려주고 싶은
そして私自身にも、また聞かせたい

위로의 말이다.
慰労の言葉だ

- 백정미의《너도 많이 힘들구나》중에서 -
- ベク・チョンミの〈お前も辛かったな〉より -

* 나만 이토록 힘들고 아픈가, 하며 살다가
* 私だけがこのように、つらく、痛いのかと生きたら

어느 날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음을
ある日私よりさらにつらく、痛い人がいるのを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わ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痛みを通じて

내가 치유받고, 나의 치유를 통해서
私が癒しを受け、私の癒しを通じて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他の人を慰労することができます

"우리 힘내서 살아가자!"
"私たち頑張って生きよう!"

외칠 수 있습니다.
叫ぶことができます

들려주다
[타동사][←들리어 주다] 聞かせる; 聞かせてやる.
외치다
[자동사][타동사] 叫ぶ; わめく; 声を張り上げる; 呼ばれる.

2013년 6월 21일 보낸 편지입니다.(526조회)

더 잘 살기 위해서
良く生きるために

여행을 한다고
旅行をすると

바로 무언가가 남는 건 아니다.
すぐになにかが残る訳ではない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여행하던 날들을 되돌아보면,
しかし時間が流れて、旅行した日々を思い浮かべれば

낯선 거리를 헤매고 다니던 시간은 평생 웃음지을 수
見知らぬ街をさまよって、歩いた時間は一生微笑むことができる

있는 기억이 된다.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건
記憶になる。旅立ちたい思いをすることは

사치가 아니다. 왜 꿈만 꾸고 있는가.
贅沢ではない。なぜ夢を見るのか

한번은 떠나야 한다.
一度は旅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

떠나는 건 일상을 버리는 게 아니다.
旅立つことは、日常を捨てることではない

돌아와 일상 속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다.
戻ってきて日常の中で良く生きるためだ

- 박준의《카오산 로드에서 만난 사람들》중에서 -
- パク・ジュンの《カオサンロードで会った人々》より -

* 남보다 더 부자로 사는 것,
* 他人よ富豪に生きること

남보다 호의호식하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일까요?
他人より贅沢することが、よく生きることですか?

물질의 풍요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物質の豊かさもちろん重要です。しかしそれが全てではありません

일상을 벗어나 한 걸음 더 멀리 더 깊게 세상을 바라다보면
日常を離れ一歩さらに遠く、深く世の中を眺めれば

물질의 풍요보다도 마음의 풍요로움이 사람을 진정으로
物質の豊かさよりも心の豊かさが人を真に

더 잘 살게 해주는 길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より豊かにしてくれる道であるのを気付くようになります

(2007년9월21일자 앙코르메일)
(2007年9月21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낯설다

[형용사]

(人に対して)面識がない; 見慣れない; 見知...

(物事に対して)不慣れだ; なじみが薄い; 見知(み...

사치 (奢侈)

[명사]奢侈; 驕奢; 奢り; ぜいたく.

호의호식 (好衣好食)

[명사]よい衣服をまといよい食べ物を食べること; ぜいたく...

2013년 6월 22일 보낸 편지입니다.(4,537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현태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キム・ヒョンテ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반창고 아프지 않게 떼는 법
絆創膏の痛くないようにはぐ方法

존 우드,
ジョン、ウッド、

내 말 잘 들어.
私の言葉を聞け

일회용 반창고를 떼 때
使い捨ての絆創膏をはぐとき

아프지 않게 떼는 방법이 뭔줄 아니?
痛くなくはぐ方法が何かわかるか?

그건 바로 한 번에 확 떼는 거야.
それはまさに一度にさっとはぐことだ

네가 마음의 결정을 했으면 더 이상 망설이지마.
お前が心の決定をしたらこれ以上ためらうな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란 말이야.
お前がしたいようにするのだ

- 김이올의《나는 인생의 고비마다 한 뼘씩 자란다》에서 -
- キム・イヨルの《私は人生の峠ごとにちょっとずつ育つ》 -

* 신념의 길은
* 信念の道は

고난과 고독과 고통의 길일 수 있습니다.
困難と孤独と苦痛の道であるといえます

그러나 나의 믿음, 나의 힘, 나의 의지를 믿고
しかし、私の信頼、力、意志を信じて

의연하게 처음 가졌던 나의 신념의 길을 가면
毅然と初めて持った私の信念の道を行けば

아프지 않게 반창고를 떼듯 좋은 일들이
痛く無いうように絆創膏をはぐようにいいことが

많이 생기고, 훨씬 멋진 삶이
たくさん生じて、一層素敵な人生に

될 것입니다.
なるでしょう。

반창고 (絆瘡膏)

[명사]絆創膏.

망설이다

[타동사]ためらう; 躊躇する; 惑う; 二の足を踏む.

의연 (毅然)

[명사]毅然.